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8월 18일 (제101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 목사

절실함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여전히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나요?” 그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맞다.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간절함이 나온다. 간절(懇切), 간 줄기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고 애끓는 심정이 없으니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 나의 매형이 쓰러졌다. 나는 기도원집회 중이라 달려가지 못하고 누이에게 전화를 하니 누이가 방성대곡을 해댄다. 나는 누이가 70 평생에 그렇게 우는 것을 못 봤다. 누이가 하도 우니까 나도 같이 울었다. 나는 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 시대 목사라 이역사 목사, 이정미 전도사에게도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누이도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매형이 의식이 돌아와 일반병실로 나왔다. 절박한 심정이 이런 것이다. 하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 광야에 머물 때 아들인 이스마엘이 목마르다고 하니 두 다리를 뻗고 울어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옆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다. 사라의 편이 되어 하갈을 광야로 내모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갈도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울어대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한나도 그랬다. 아들을 과시하며 멸시해대는 브닌나를 보며 한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태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얻게 하셨다. 그것도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절실함이 없어서 그렇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가랑이 속으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왜냐하면 응답은 소망의 열도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끝이 없어우는 소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남 탓 말고 너 자신이나 점검해라

정비소는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고, 종합병원엔 신체 검진을 받기 위해 간다. 기도원은 영적 정비소요, 종합병원이다. 영적으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점검하고 수리하는 곳이 기도원이다.

하계산상집회 둘째 주간 첫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은 ‘남 탓 말고 너 자신이나 점검해라’ 하는 제목으로 영·혼·육의 점검을 강조하셨다.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기업을 점검하지 않으면 부도날 수 있고, 가정을 점검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 국가재정을 점검하지 않아서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영·혼·육의 점검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잘못된 것이 무엇

신앙에 녹이 스는 것은 나태함, 곧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고, 찬송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고, 헌신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신앙이 점차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하고 자동차 점검을 미루다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운동을 미루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주의 일 하지’ 하다가 갑자기 가게 되면 정말 보장 못합니다. 만사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셨습니다. 잠언을 읽어보세요. ‘좀더 자자, 좀더 쉼자, 좀더 놀자 하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잠6:33~34), ‘게으른 자는 그 부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12:35~36). 이는 외출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쉼에 일어나야지’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스펀지 잠이 들게 되고, 결국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암적 존재요, 성공의 최대 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나하나 경영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세계를 경영하겠고, 기업인들 관리하겠습니까? 고로 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



2019 하계산상집회(8월 5일~15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인지 점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디에 걸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일 미리 살피지 않아 첫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이 축대를 옮겨버려 금세와 내세에 암흑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도 하셨습니다(잠10:26). 여러분, 점검은 부지런함의 산물입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늘 소 떼와 양 떼를 살피고(잠27:23), 부지런한 가정은 늘 가족을 살피고, 부지런한 기업주는 기업과 직원들을 점검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은 당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도원 집회를 앞두고 저는 기도원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식당이며 숙소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위생문제며, 부식거리며 세밀한 것까지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관심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 부지런을 떨어봅시다. 그래서 영·혼·육에 성공하는 자들이 됩시다.” 목사님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셨다. 부디 이 집회를 통해 녹슬고 무뎠던 신앙이 다시 날이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기도원 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물질상면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신묘수 전도사



영혼육이 살피는 산상집회



성령충만을 회복하는 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후2:1~22)

혹하는 말에 속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막13:5). ‘미혹이란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미혹=유혹’으로, 유혹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유(誘)는 말쑥 언(言) + 빼어날 수(秀)’가 합해서 된 말이고, ‘혹(惑)은 혹 혹(或) + 마음 심(心)’으로 되어 있어, 빼어난 말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럴싸하게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꾀는 것이 유혹입니다.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듣고 있자면 정말 혹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꼭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장수입니다. 노인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니까 그걸 노리고 약을 파는 자들이 있는데 대개는 사기입니다. 그들은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며 파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짜 저것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 노인네들이 속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쌈짓돈을 다 꺼낸다니까요.

미혹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셨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할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한 번 먹어봐,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혹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인 아담은 하와의 말에 유혹되어 공범이 되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삶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달콤한 것이 몸에는 해롭다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12:9)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를 꾀었던 마귀가 온 천하를 다니며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란 놈은 예수님까지 유혹,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Temptation)을 이기신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

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한 자에게 먹는다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고 유혹합니다. 사실 이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능력도 가지고 있었 셴고,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유혹에 혹하실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 4:4)며

유혹을 이겨내 셧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고 하면서 간교하게 “저 회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2)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에 말씀 드렸죠? 유혹하는 자는 말을 정말 그럴싸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엡6:17).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으로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요5:39).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혹의 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사 역사하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2:11~1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2:4~6). 그러나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의의 결과를 맛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롬1:18~25).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 르앗라뭇을 놓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입 니 다 . 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합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미혹의 영을 그들 입에 불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뭇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왕상22:20~22). 아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유혹을 받는 줄 압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욕

심이 있으니까 사기꾼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천만 원 맡기면 월 백만 원씩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약1:14~16)고 경고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반석 같으면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어마이트를 터뜨릴 때 선 끝에 불을 땡기면 선을 타고 들어가 폭발하는 것처럼 내게 욕심의 선이 깔려있기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왔습니 다. 올림픽공원에 입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즈음, 현금 300억 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20억 만 있어도 교회를 지었으니 300억이라는 돈은 정말 혹할 만큼 큰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지라 이를 단호히 거절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림픽공원에 들어갔 습니다. 만일 300억으로 교회를 지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달콤한 사탕 하나에 쓸개가 빠져나간다

여러분, 유혹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첨입니다. 듣기 좋은 말, 칭찬 같은 것을 해서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첨(阿諛)이란 말로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잠29:5). 여러분, 이성의 유혹에 약합니까? 돈에 약합니까? 명예에 혹합니까? 그것을 놓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공부 한다면서 유혹하는 이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3~24). ‘뭐 새로운 거 없냐?’ 하다가는 나도 몰래 유혹에 빠집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서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라

소꿉장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먼저 네가 서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라.” 먼저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국제정세를 지배하는 키가 무엇인가? 바로 힘의 논리다.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권이나 실행력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우리가 지난날 주변열강에 속절없이 휘둘리며 나라까지 잃는 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던가? 우리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해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세에 의존해야했다. 그러나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조건 없이 우리 편이 되어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폐일언하고 먼저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은 세계 초강대국 미합중국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던 시절이 아니다. 그때는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이 전략무기들을 동원하고 무력시위까지 해대며 우리 안보를 책임져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면서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요구받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며 헤쳐 나가야 한다. 미국도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세계 국제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던 경찰국가의 역할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내치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태평양방어 전략도 이제는 일본과 우

리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도, 일본이 수출규제카드를 제동을 거는 이유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는 이유도 다 덩치가 커진 대한민국을 견제하거나 우리 경제력에 합당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국임은 분명하다. 목사님께서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하시는 이유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구한말 외세에 휘둘리던 대한제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 위협할 때 미국의 보호 아래 전전긍긍해야 했던 나라도 아니다.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권의 강국으로 우뚝 서있다. 넘사벽이었던 일본 GDP의 7, 80%까지 육박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다. 외세의 도전에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약소국처럼 굴종할 이유도 없다. 오늘의 위기는 분명 하나님 주신 기회다.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정세를 평화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Henry Han

:: 성경에세이 ::

왜 매일 귀신 쫓으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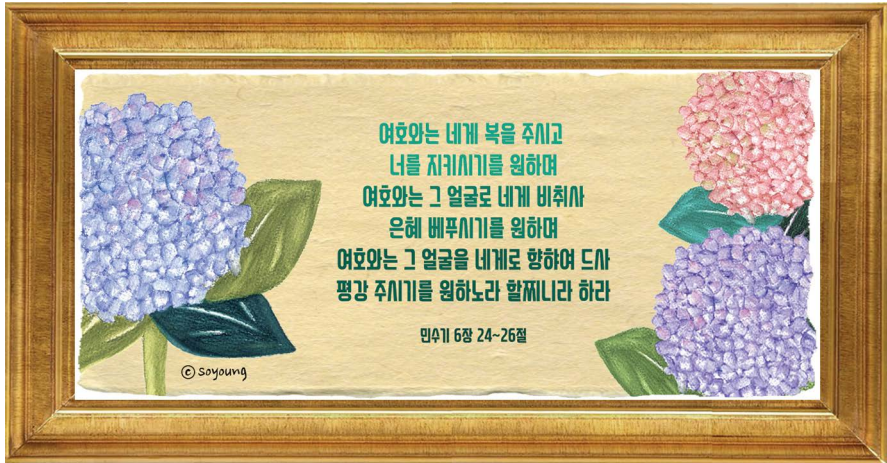
여보게! 자네는 왜 매일 밥을 먹나?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밥을 먹겠지. 그럼 왜 매일 세수하나? 깨끗이 하려고 그러겠지.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느 성도가 나에게 전화로 걸어 참여이없는 말을 해서라네. 그가 전화해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는가? “왜 목사님은 매일 귀신을 쫓으라고 해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아니,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데 (마12:28), 왜 매일 귀신을 쫓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네. “내가 매일 귀신을 쫓으라고 했나? 그게 내 말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을 내게 따지는 거지? 당신이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는 관계치 않겠다. 그러나 주님이 어제도 귀신 쫓고 오늘도 귀신 쫓으시면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으면 (눅13:32) 쫓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지?”하고 큰 소리로 말해줬지. 그랬더니 무섭다는 구면. 왜 무서울까? 그 안에 귀신이 있어

서 그런 거라네. 귀신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는가? 귀신이 동지 틀고 앉은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네. 도둑 얘기하면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여보게!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종개들이네. 그것들을 진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네 (요일3:8). 그런데 그제 싫다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 아닐까. 도적은 매일 매순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왜 매일 도적을 쫓으라고 하냐고 따진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참새가 매일 다 익은 곡식을 쪼아대는데, 왜 매일 참새를 쫓으라고 하냐고 투덜댄다면 어찌 될까? 귀신이란 놈은 우리의 육체가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놈이네 (마12:44). 그래서 언제든 제집 드나들듯 한단 말이지. 그런 놈을 매일 쫓으라고 하신 게 옳은 말씀 아니겠나? 그분이 우리 잘되라고, 건 강하라고, 잘 살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옳은 것 아니겠나? 朋友

목사님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소꿉장난하고 있죠?” 물으셨다고 한다. 참으로 경이로운 비유이다. 뜻 없이, 값없이 부유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 소꿉놀이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위중한 일이고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네 삶을 꼭 소꿉장난처럼 살아버린다. 죽음을 앞에 두고는 제법 진지한 성찰 속에 삶을 돌이켜보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내 이 세상, 장난 같은 삶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하셨나 보다. 나는 이번에 죽음을 진지하게 맞닥뜨리는 두 번의 수술을 힘겹게 겪었다. 평강과 감사,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속에 은혜로운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도 잠시, 어느새 내 마음에 분노와 크고 작은 감정들이 나를 삼키고 있음을 느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혹 바람 불면 날려버릴 이 삶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니 인생을 소꿉놀이로 보내는 것 아닌가. ‘주님.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내 속사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소서. 나를 격동하는 모든 육체적 자극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게 하소서. 항상 성령께서 안주하시고 내 영이 깨어있도록 주님의 신령한 빛 속에서 살도록 하소서. 아무리 연단이 크고 위중한들 깨우침이 크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소꿉장난처럼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주님! 내가 또 소꿉장난하고 있죠? 참 삶을 살기 원하는 나에게 세상 허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허망한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제가 또 소꿉장난하고 있죠?”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소망의 언덕 ::

강점에 집중하라

퀄컴 리더십연구소의 선임강사이며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마커스 버킹엄과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클리프턴이 함께 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은 시종일관 강점에 초점을 맞춰 삶의 승리를 이뤄내라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버킹엄은 자신이 주도했던 퀄컴 조사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퀄컴에서 지난 20여 년간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약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점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 20% 정도 노력하고, 나머지 80%는 강점을 강화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승리는 약점의 보완이 아닌, 강점의 강화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약점과 강점이 있다. 흔히들 약점일지라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것은 이미 금이 간 벽을 벽지로 가리는 헛수고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약점을 보완하는데 힘을 쏟지 말고, 강점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는 혁신적

인 발상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천재적이었다. 그러나 법적, 상업적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티브 발머를 경영 파트너로 선택하고, 자신은 자신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 승리했다. 세계 최고의 투자왕 워렌 버핏의 승리 비결도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 강화였다. 느긋한 성격을 가진 그는 이 성품을 십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의 이 느긋한 성품을 그 유명한 ‘20년 전망’에 적용해 20년 동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 성공했다. 이초석 목사님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시다. ‘강점에 집중하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 강점(달란트)을 주셨다. 지금부터라도 그 강점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들어서는 예수중심교인이 되어보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전7:17). 이현승 전도사

온유(溫柔)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저를 ‘예화’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이름은 온유가 아닌 ‘예화’였습니다. 저에겐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첫째 동생의 이름은 대화, 막냇동생은 화백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사람은 부르는 이름대로 성장한다고 하시며,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그 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는 너희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게. 예화는 성격이 불같으니까 온유라고 부르고, 대화는 잘난 체를 많이 하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이라고 부르고, 화백이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정직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

그날부터 제 이름은 온유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문득 온유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이라는 감동을 받아 법적으로도 바꾸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름을 바꾸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두 다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이름을 바꿨다고 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들은 어색하다며 처음엔 바뀐 이름으로 부르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다들 재미있어하면서도, 제 성

격을 잘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꾼 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믿음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단번에 바뀌었다고 답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변덕도 심하고, 자주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바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 “온유야!”라고 제 이름을 부르면 너무 큰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지?’ 또 어느 날은 신입사원에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날, 대표님의 이름이 온유라고 해서 정말 따뜻하고 자상할 줄 알았는데, 입사 첫날 보니 ‘아~, 이름만 그렇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이지만 가슴에 비수를 찌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며, “콜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물 같은 자가 되어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콜라 같은 자였고, 온유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온유라는 이름이 감당하기 벅거워서 이름을 다시 바꾸고 싶다고 여러 번 생각했

습니다. “목사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애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유라고 불린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니 주변에서도 많이 알아주십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지인도 많이 온유해진 것 같다 하고, 직원들도 “대표님이 달라졌어요.”라고 종종 말합니다. 모두가 “온유야, 온유야.”라고 불러주니 더욱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겐 큰 꿈이 있습니다. ‘에데니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에덴의 향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제 자신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시편 37:11).

김온유 집사

성장의 딜레마

배달어플 사용자가 2018년도 2,500만 명, 즉 국민 2명 중 1명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홀 장사만 하던 수많은 식당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형업체를 통해 배달까지 겸하면서 배달 위주의 나의 가게는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한식코너만 300여 개에 가까운지라 그 업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날마다 새로운 반찬과 더 나은 메뉴개발에 고민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른 새벽 3%의 업소가 배달운영 중임을 발견했다. 고객의 평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문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나는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미명에 배달직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그저 좋은 낚시터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목사님의 설교 중 ‘내비게이션’ 단어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근거리 배달에만 익숙한 딸에게 후한 보너스를 제시하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중장거리도 배달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의외로 딸은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덕분에 매출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손익분기점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나는 매일 새벽잠과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그러나 새벽 3시경 들르는 시장에는 엄동설한에도 모닥불에 의지해 삶의 현장을 누비는 시장 상인들을 보며 나 자신을 추스르곤 한다. 일찍 출근한 딸은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새벽공기가 참 상쾌하네요.’ 하며 새벽의 매력에 젖어가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 ‘불경기라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좌절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고민해보자. 분명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을 것이며, 번뇌하고 움직이는 만큼 근로소득이 돌아온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생각의 범위를 넓혀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면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새들 지저귀는 청명한 새벽, 두 모녀는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박수를 보낸다.

추성숙 집사



선한 목자

내 맘 주를 사모하오니
내 눈은 양 떼 보게 하시고
나의 귀 주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입술은 복음만 증거하게 하소서
오호라 곤고한 내 인생이여라
오늘도 내 육체
주님 도구 되게 하소서

朋友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생활 속의 잠언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오래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씀이 스치듯 기억난다.

그 당시 한국 땅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이 살았다. 꿈틀거리는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세계지도와 미국 지도를 샀다. 책상 유리 아래 지도를 깔고 날마다 되뇌었다. ‘이 넓고 넓은 곳을 한 번씩은 밟아봐야겠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그 많은 일 중 몇 가지라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로 수도 없이 많은 비행기를 탔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국제도시 쿠알라룸푸르에서 3주째 중고등학생들과 강도 높은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도시이다. 수없이 많은 외국인 틈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살고 있다. 서툰 영어로 이십여 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들에게 꿈을 찾아주려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대학교 답사를 다닌다.

브로큰 잉글리쉬로 이곳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서울 것 없이, 거침없이 버틸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열정과 신념 때문이다. 주어진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담대함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어느덧 예순이 되었고, 당뇨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으며, 눈은 망막 변성으로 가끔 걷기에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애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에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

오늘도 세계인이 모여들며 고층 건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거리를 걷는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호하심 아래 내딛는 걸음걸음을 알기에 오늘보다 내일은 더 멀리, 더 많이 걷고, 또 걸어보려고 작심한다.

시마다 때마다 목사님께 배웠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초로의 할머니가 되었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삼십 대 열정으로 세

상을 향할 수 있음은 누가 뭐래도 평생 신앙의 인도자였던 그분의 가르치심 때문임을 확신한다. 이곳의 곤고한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마음도, 순간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음도 오랫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분의 가르치심 때문임을 알고 있다.

먼 곳에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신앙과 삶의 뜻대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라도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이방 나라에서의 시간을 기도로 이겨보려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